



세익스피어의 고향, 스트랫포드

김 윤 기



▲스트랫포드의 메인스트리트.

현 벽에 검은색 나무기둥을 가로세로 엮은 전통가옥으로 온 도시를 꽉 채우고 있다.

영국인의 자존심이 하나로 똘똘 뭉친 대문호 세익스피어가 태어난 곳은 스트랫포드이다. 에이본江가에 있기 때문에 Stratford Upon Avon이 정식 명칭이다.

스트랫포드는 런던 패딩톤驛에서 기차로 약 2시간반 걸리는 곳에 있다. 스트랫포드역은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서 있다. 규모도 작고, 시설도 빈약한 시골역이다. 그 혼한 코인로카조차 없어 짐이 있는 사람들을 찢찢매게 한다.

시내는 역전에서 동쪽으로 뚫린 신작로로 한참 걸어야 한다. 역전에는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가 항상 대기하고 있으므로 걷기가 싫으면 버스를 이용해도 된다.

스트랫포드는 좀 색다른 도시다. 런던이나 유럽의 다른 도시에서 보지 못한 풍물과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우선 집들이 다르다. 하얀 벽에 검정색 나무기둥을 가로세로 엮어 지은 집이다. 이곳에서는 이런 특이한 건축양식을 「하프·틴바드」 또는 흑과 백이란 뜻으로 그냥 「Black and White」로 부르기도 한다.

이 집들은 16·17세기 때의 것으로, 영국의 전통적인 주택 건축 양식이다.

시내에는 곳곳에 세익스피어와 관련된 기념물이 널려 있다. 세익스피어의 생

가(生家)를 비롯, 셰익스피어가 다닌 학교, 부인 안네의 친정집, 어머니의 친정집, 딸의 집, 손녀의 집, 셰익스피어가 만년(晩年)을 보낸 집 등이 있고, 셰익스피어극장, 셰익스피어 박물관, 셰익스피어 도서관 그리고 그의 동상과 심지어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동상까지 시내에서 구경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생가는 헨리街에 있다. 길보기엔 허름한 목조가옥이다. 그러나 지붕방이 있는 3층집으로 꽤 큰 편이다. 내부에는 어렸을 때 사용했던 요람과 침대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아버지(존셰익스피어)는 상인으로 이 동리의 부자였다. 셰익스피어는 1564년 4월 23일, 이집에서 부잣집 장남으로 태어나 귀염을 받으며 자랐다.

셰익스피어의 생가를 보려면 바로 옆에

있는 셰익스피어센터를 경유해야 한다. 이 센터 안에는 영국의 BBC방송국이 셰익스피어 드라마를 방영할 때 사용했던 의상콜렉션이 전시되고 있어 맥베드, 햄릿 등 등장인물의 시대 의상을 볼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보려면 에이본강변으로 가야한다. 도시의 동쪽 가장자리를 남북으로 흐르는 에이본 강변도로를 따라 로열·셰익스피어극장과 스완극장이 있고, 조금 떨어져 디아더플레이스(The Other Place) 극장이 있다.

이 3개의 극장은 모두 RSC(Royal Shakespeare Co.)에서 운영한다. 3개의 극장 중 로열·셰익스피어극장은 셰익스피어 작품 전용 극장이다. 그러나 다른 2개 극장은 비(非)셰익스피어연극도 공연한다.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공연되는 셰익스피어 연극은 표사기가 매우 힘들다. 몇



◀ 셰익스피어 호텔.
호텔이름도 셰익스피어 이름을 땀다. 건물은 전통적인 하프-틴버드 양식이다.



▲세익스피어의 生家.

아버지는 당시 부자 상인으로, 유복한 소년시절을 이 집에서 보냈다.

달 전에 이미 매진되기 때문이다. 당일권은 입석표뿐이고 그나마도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개장시간에 임박하여 매표소입구에서 기다리면 스탠바이 티켓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은 예약취소자가 있을 때 발매되는 티켓이다.

세익스피어 부인 안의 집은 조금 떨어진 교외에 있다. 시내에서 이곳까지는 버스가 다닌다. 세익스피어는 18세때, 5년이나 연상인 안·하사웨이와 결혼한다.

안의 친정은 부농이다. 초가지붕을 가진 이 집안에 들어가면 16세기때 영국 농가의 풍습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부엌의 구조나 조리기구, 난방기구 등이 인상적이다.

스트랫트포드 시내에는 세익스피어 一家의 집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다. 딸 수잔나의 집도 한번쯤 볼만하다. 사위·존 할은 당시 스트랫트포드에서 유명한 의사였다. 그의 집(Hall's Croft)에서는 슈터王朝 시대의 내장과 정원을 볼 수 있다.

세익스피어의 외가집(어머니 마리가 살던 집/Mary Arden's House)은 4.8킬로 떨어진 시골에 있고, 손녀가 살던 집(Nash's House)과 세익스피어가 그의 말년을 보낸 집터(New Place)도 시내에 있다. 뉴플레이스는 건물은 없어지고 터만 남아있다.

세익스피어가 다니던 학교도 옛모습 그대로 남아 있고, 세익스피어 박물관에는 친필 원고와 필기도구 등이 보존되어 있으며 세익스피어 기념비는 그린힐街 북관의 광장에, 동상은 반크롭포트공원안에, 흉상은 세익스피어 극장 앞 광장에 있다.

세익스피어는 1916년 4월 23일, 53살 되던 해 생일날 세상을 떠났다. 공교롭게도 생일과 기일(忌日)이 같은 날이다. 그리고 그의 유해는 홀리·트리니티교회당 안에 있다. 세익스피어가 아니었으면 스트랫트포드는 사람이 찾지 않는 조용한 무명의 시골마을로, 런던의 교외의 다른 작은 마을처럼 그냥 남아 있었을지도 모른다.



▲셰익스피어의 초상화.
호텔로비에 걸려있다.

런던에서는 「셰익스피어 관광코스」가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관광코스 중에는 럭비, 코벤트리, 케널워즈, 위워크, 스트라트포드, 옥스포드가 포함된다.

이 코스의 길이는 209마일이나 되어 하루 관광코스로서는 좀 버거웁지만, 일찍이 출발해서 서둘러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여행은 시외버스나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돌기는 시간적으로 어렵다. 만약 버스나 기차로 이 코스를 돌려면 3일은 잡아야 한다.

코벤트리는 전후 공업도시로 발전한 도시지만, 유명한 코벤트리 대寺院이 있다. 14세기 때 세워진 이 사원은 높이 90m의 뾰족탑만 기적으로 남고 파괴된 것을 최신 설계로 복구한 것이다. 이 사원을 복구할 때는 파괴자였던 독일이 경비 일부를 보조했다는 일화가 있다.

럭비는 코벤트리 부근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1567년에 창립된 엘리트공립학교 럭

비학교가 있어 유명하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 럭비가 탄생한 것은 이 학교 안마당이였다. 1823년 엘리스라는 청년이 축구에 지나치게 열중하던 나머지 공을 옆구리에 끼고 뛰어난 것이 계기가 되어 럭비가 탄생했다.

케널워즈에는 노르만古城이 있다. 지금은 황폐했지만 한때는 헨리2세, 헨리3세, 존王 등이 다녀간 영광의 시대가 있었던 12세기초의 성이다.

위워크에도古城이 있다. 이 고성은 정원이 아름답고, 루벤스, 반다이크 등의 작품과 옛날의 무기, 화려한 장식품 등이 전시되어 있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한다.

옥스포드는 영국의 명예를 상징하는 옥스포드大學이 있는 교육도시이다. 옥스포드는 35개의 대학과 1,500명의 교수, 1만명의 학생을 가진 800년 전통의 종합대학교다. 도시전체가 대학이기 때문에 도시구경이 아닌 대학구경이나 다름없는데, 오픈버스(요금 3.5파운드)가 15분간격으로 시내를 두루 다니면서 대학구경을 시켜준다.

대학이기도 하면서 교회인 크라이스트 처치, 오스카와일드, 에드워드 8세가 다녔다는 모들린大學, 세계최고의 도서관이라는 보들레이언 등이 이 도시의 명물들이다.

시내에는 서점, 카페, 기숙사 등 학생을 위한 시설 뿐이다.

〈필자 = 해외의학 교류회장 · 최신 여행 정보 발행인〉